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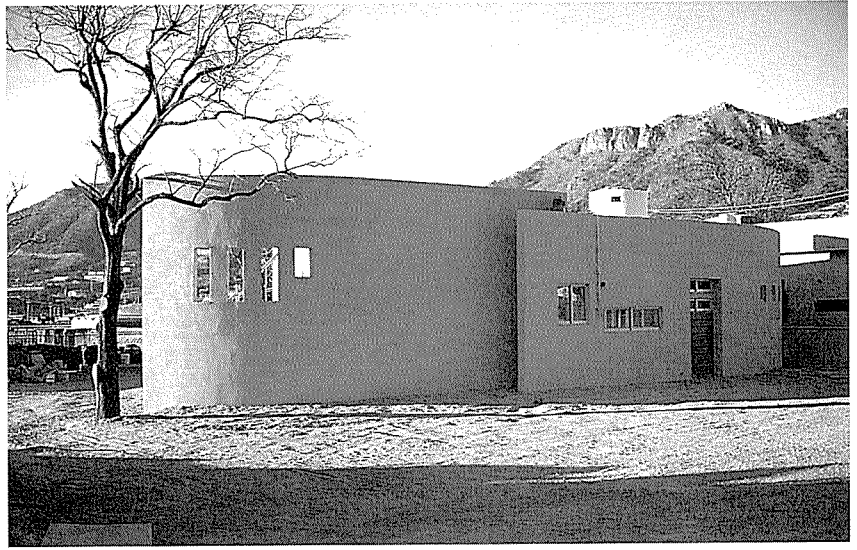
용수리주택

Yongsu-ri House

김성곤 / 성·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ung-G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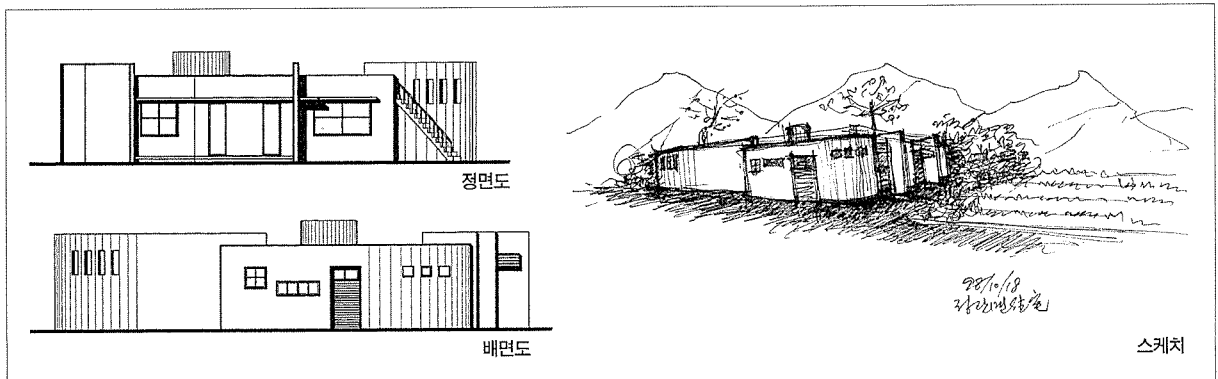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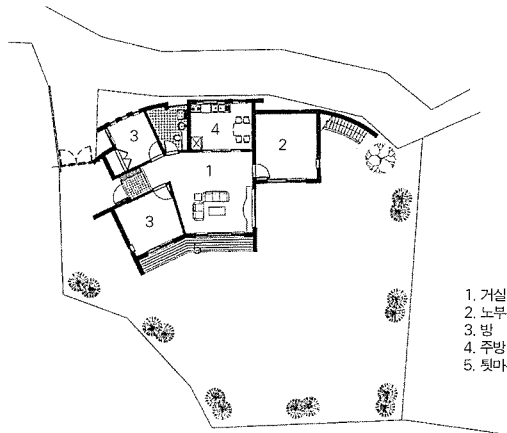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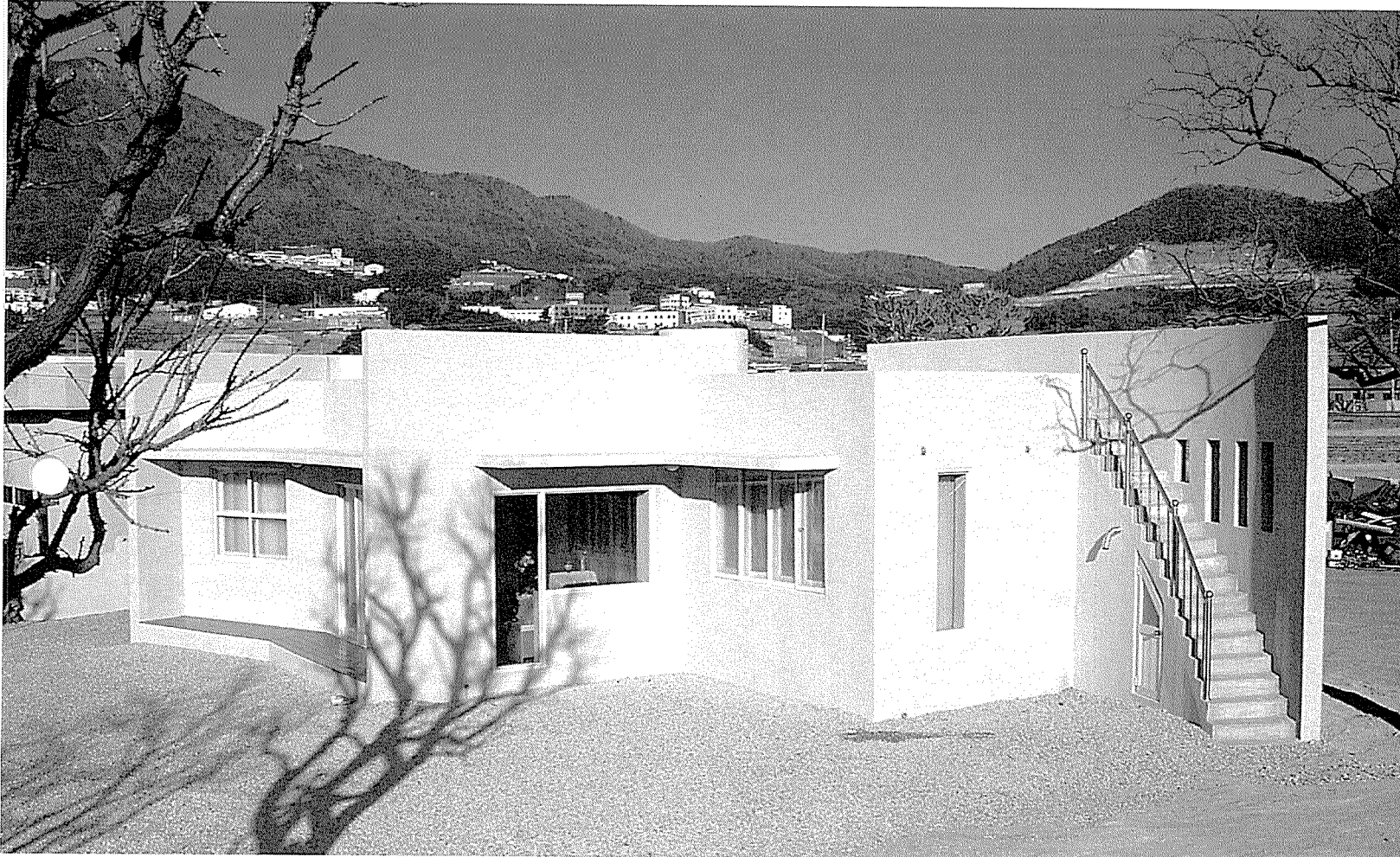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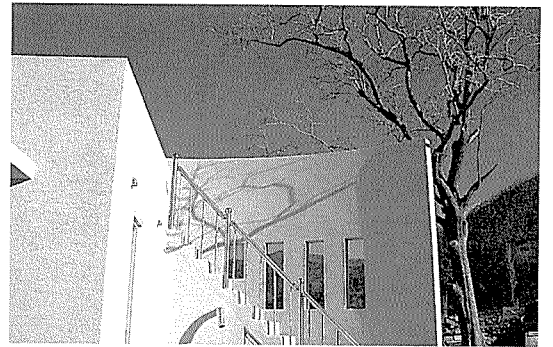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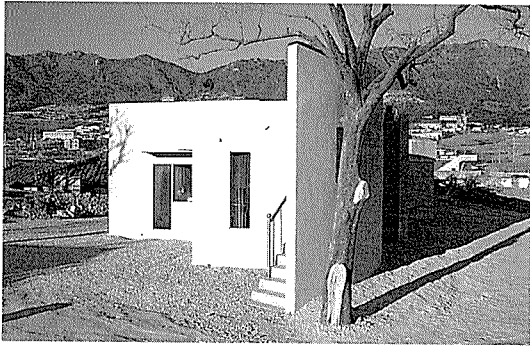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530번지
대지면적	252.09㎡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86.78㎡
연면적	84.90㎡
건폐율	34.42%
용적률	33.68%
용도	단독주택
규모	지상1층
구조	조적조
외부마감	드라이버트+목재
설계담당	곽복희, 김종수
시공	김호길



아무나(?)설계하여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 연면적 100㎡ 이하 건축신고에 해당되는 농가주택설계를 의뢰 받았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설계의 필요성과 설계비에 대한 생각의 가치기준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를 이해한 건축주는 설계만 해주면 신고절차는 직접하기로 하고 작업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건축주는 허가와 신고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신고절차 및 대관업무에 허를 내들렸고, 건축3인방(?)은 소원한 인간관계로 끝났을 뻔했던 일들이 생각한다. 최소한의 건축이 어렵고 중요한데 건축가의 손을 떠나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설계에 대한 건축주의 요구조건은 공사비는 평당 200만원 이내로 면적은 25평이내에서 다가능의 요구이었기 때문에 계획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자제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대지는 전형적인 시골 들판에 사방으로는 높고 낮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친 아름다운 풍광을 그리고 있었다. 북쪽에서 진입의 어둡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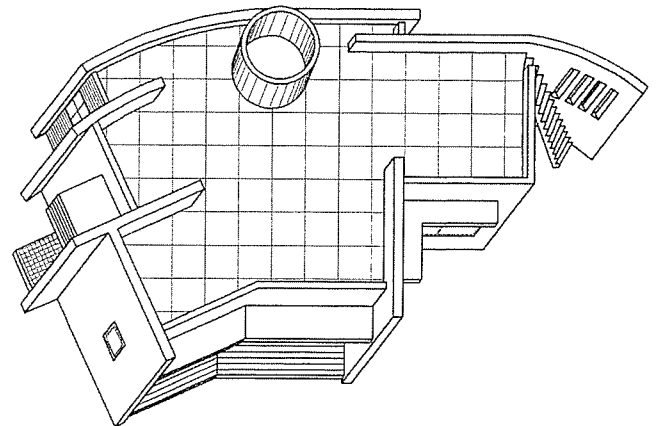
차가운 느낌을 해소하려고 진입부를 부드러운 곡선형으로 계획하고 높고 낮은 벽이 서로 엇갈리며 중첩되게 하여 주변 곡선형의 산들과 순응하는 형태를 취하며, 외부도로와 마당과의 사이를 단절과 밝은 개방공간으로 구획하였다. 거실은 동, 남측 자연 경관을 실내로 풍성하게 끌어들이게끔 창을 2면으로 개방되게 배치하고, 노부부 방에서는 앉아서도 외부공간이 항상 보이게 창을 낮게 처리하였으며, 외관형태는 처음부터 장식을 최대한 배제하여 군더더기를 없애려하였고 남쪽의 강한 햇살을 차마로 일조를 조절하고 거실 앞 툇마루는 노부부의 겨울 일광욕을 위함이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원만한 곡선형 계단벽 옆에 현재 서 있는 감나무는 노모께서 청소하기가 힘이 들다며 베어버리려고 하는 것을 극구 말려 생명력을 갖게 해 놓았다. 내년 가을에는 감나무에 빨간 감이 주렁주렁 열려 북측 고선벽의 한기한 여백을 메워주었으면.....





- 1. 거실
- 2. 노부부방
- 3. 방
- 4. 주방
- 5. 헛마루

배치 및 평면도



엑소노메트릭